

【어원 탐구 2】

## ‘동산’과 ‘서랍’

이기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머리말

국어연구원은 지금 한창 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중이다. 말은 ‘대사전’이지만, 지금 ‘대사전’이니 ‘큰 사전’이니 하는 이름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이 역시 ‘중사전’의 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대사전’이 되려면 지금까지 나온 우리 나라의 모든 문헌 자료를 다 읽으면서 쓸만한 용례를 모아야 하는데, 이런 일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형편이다.

이왕에 간행된 사전들은 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는 그중 두드러진 문제로서 한자(漢字)로 표기되는 단어들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지금까지 간행된 국어 사전들은 하나같이 표제어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자를 옆

에 적음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한글 전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사전을 편찬해 보면 이 원칙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은 많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이미 나온 사전들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어떤 사전은 한자를 적어 넣었는데 어떤 사전은 그렇게 하지 않은 표제어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한자어라고 볼 수 없는 표제어에 한자를 적은 예도 있고 한자어로 볼 수 있는데도 한자를 적지 않은 예들도 보인다.

머리말에서 해야 할 말이 많지만, 워낙 짧은 글이라 모두 생략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보이기로 하겠다.

(사전들은 간행 연도로 <1957>과 같이 표시하고 맨 끝에 가서 그 이름을 밝히기로 한다.)

## 2. 고유어와 한자어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이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구별은 어려워진다.

국어 사전들은 오래전부터 표제어 ‘저’, ‘젓가락’에 ‘箸’를 적어 왔다. ‘저’와 ‘箸’의 발음의 일치가 이 단어를 한자어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몽자회>에 ‘筋 저 더’, <신증유합>에 ‘筋(箸) 저 더’라 있는 바와 같이 ‘箸’(筋)의 옛 발음은 ‘더’였으니 ‘저’가 한자어가 아님이 쉽게 드러난다. 이 단어는 전기중세국어에서는 ‘절’이었다. <계림유사>의 “箸曰折” 참고, 최근

의 사전들 중에서 <1992>가 ‘저’를 ‘箸’로 적음은 취음(取音)이라고 밝힌 것은 자못 돋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예로 표제어 ‘외양’, ‘외양간’ 옆에 ‘喂養’, ‘喂養間’이 있음을 들어 본다. ‘喂養’이 중국에서도 사양(飼養)의 뜻으로 쓰인 것이 이런 관행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외양’은 중세국어에서는 ‘오희양’이었고 근대국어에 와서는 ‘오향, 외향, 오양’으로 변화하였으니 ‘喂養’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사전들 중에서는 <1990>이 이것을 취음자라고 하였음을 지적해 둔다.

흙을 파는 ‘삽’은 ‘鐮’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모든 사전에 이 한자가 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이 단어가 ‘삽’이었음을 안다면 이 인식에 의문이 끼어 들 것이다. 이 ‘삽’이 ‘삽’의 변화형이라거나 ‘鐮’의 옛 발음이 ‘삽’이었다거나 하는 증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단어의 한자 기원은 보류되어 마땅할 것이다.

외국인이 편찬한 사전이기는 하지만, 국어 사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880>에 ‘동산(東山)’과 ‘동산[園]’이 두 표제어로 나뉘어 있음이 주목되거나, <1957>과 그 뒤의 사전들은 하나도 ‘동산[園]’에 한자 표기를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래도 게름칙하다. 멀리는 <월인천강지곡>(153장, 154장)과 <석보상절>(6.23, 6.24, 13.23 등)의 ‘東山’으로부터 가까이는 <古今釋林>(東韓譯語)의 “苑園 通稱東山”, <隣語大方>(2.4)의 “내 집 東山”에 이르는 이 한자 표기의 긴 전통으로 보거나, 중세국어에서 ‘東’과 ‘山’이 평성인데 ‘동산’의 성조도 이와 일치하는 사실로 보거나 이 단어는 한자어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수고’를 들 수 있다. 이상하게도 최근의 사전들 중에는 이 표제어 옆에 한자를 적어 넣은 예가 하나도 없다. <석보상절>(6.4, 9.15)에서 시작하여 <두시언해>(9.29)를 거쳐 <1880> <1930>에 이르기까지 ‘受苦’가 기록된 긴 역사가 완전히 잊혀진 것일까.

지방의 수령(守令)을 ‘원’, ‘원님’이라 부르는 것은 옛날에도 ‘員’에서 왔다고 생각하였으니 그 증거로 <용비어천가>(16장)를 비롯하여 <육조법보단경언해> (上 1) 등에 이 한자로 표기된 예들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員’이 벼슬아치를 가리켰으니 이 말은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거의 모든 사전이 한자어로 다루었는데 다만 <1992>만이 이것을 취음자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3. 원말 또는 본디말

최근의 국어 사전들에서 우리는 ‘원말’ 또는 ‘본디말’로 한자어를 든 예를 자주 본다. ‘설령’의 원말은 ‘현령(懸鈴)’이라고 한 것이 그 한 예다. ‘혀’가 ‘셔’를 거쳐 ‘서’로 된 예들이 적지 않은데 ‘설령’도 이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본 것이다. 어원 사전이 아닌데도 한자어에 한하여 이렇게 원말[본디말]을 적는 일은 우리 국어 사전의 한 관행이 되어 버렸다. 이 관행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흥밋거리지만, 이 원말에는 적지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원말들도 대개는 표제어로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예들도 있다.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버젓한 표제어로 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원말은 하나의 추정(推定)이다. 올바른 추정은 광범하고 치밀한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사냥’의 원말이 ‘山行’임은 이 말이 마침 〈용비어천가〉(125장)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졌다. 이 한 예만이라면 몰라도 〈내훈〉(2상 2)를 비롯한 그 뒤의 여러 책에도 나타나므로 이 원말 추정은 매우 큰 확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랍’의 예를 들어 보기도 한다. 〈1957〉이 ‘서랍’의 원말을 ‘舌窟’이라 한 것은 앞선 사전들을 따른 것이었다. 〈1961〉, 〈1990〉, 〈1991〉 등도 이 전례를 따랐다. 다만, 〈1992〉만은 ‘舌窟’을 취음자로 보았다. 그런데 이 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957〉에도 보이는 ‘혈합’의 존재다. 〈1992〉에서 표제어 ‘혈합’을 찾아보면 ‘서랍’의 동의어로서 ‘穴窟<舌窟>이라 하였다. 이 사전이 표제어 ‘서랍’에서 ‘舌窟’을 취음자라 한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머리가 조금 가우뚱해진다. 이 말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필시 중세국어의 동사 ‘혀-[引]의 활용형 ‘혈’이 한자어 명사 ‘합’에 붙어서 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합’이 쓰인 증거가 〈구급방〉(下 8), 〈훈몽자회〉(中 6) 등에 있음을 덧붙여 둔다. 평안 방언에서 ‘서랍’을 ‘빨합’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어원 해석에 대한 방증이 된다. 이것은 동사 ‘빠-’의 활용형 ‘빨’이 한자어 명사 ‘함’ (函)에 붙어서 된 말임에 틀림없다. (다른 방언들에서 들을 수 있는 ‘빠랍’도 ‘빨’과 ‘함’의 결합이다.)

□ 사전들에 ‘원말’이라고 표시된 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한자음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함에 그치려 한다. 최근의 사전들에서 표제어 ‘전반’을 보면 ‘翦板’에서 변한 말로 되어 있

다. <1992>에서 표제어 '전판(藟板)'을 찾아 보면 '전반'의 원말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한자음의 역사를 잘못 본 것이다. '板'의 옛 발음에 '반'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반'은 이 옛 발음이 보존된 소중한 예가 되는 셈이다. 근대국어 문헌에 '반즈'가 보이는데 이것도 '板子'의 옛 발음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국어의 '널빤지'에서 얻을 수 있는 '반지'는 바로 이 말이다. ('널판자'는 '板子'의 발음을 따서 새로 생긴 말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사슴의 가죽을 뜻하는 '늑비'가 있다. 국어 사전들은 이것은 원말 '늑피(鹿皮)'에서 변한 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皮'의 옛 발음 '비'가 '늑비'에 남아 있다고 설명해야 옳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나라 한자음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 보면 오늘날은 유기음으로 발음 되는 것들 중에 옛날에는 무기음으로도 발음된 흔적이 뜻밖에 많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필자는 이에 관한 논문을 따로 준비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긴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앞으로 편찬될 국어 사전에서 옛 발음이 보존된 이런 단어들의 한자 표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한 문제로 제기됨을 지적해 둔다.

#### 4. 한자어의 변화

한자어도 음운 변화를 겪는다. 한자어는 한자 표기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 한자의 원음에 매어 있음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 속박을 벗어남도 또한 사실이다.

국어의 '차례', '모란'이 '次第', '牡丹'에서 변한 것임은 <동국정운>(서문)의 인용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귀양'이 '歸鄉(귀향)'에서 변화한 것임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다. 이중 '차례'의 경우는 이 발음에 끌려 '次例'란 표기가 생겨났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쓰고 있는 한자 표기 중에 이 '次例'와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생각이 미칠 때 항상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한자어의 변화는 위에 든 예들이나 '人定'(인정>인정)에서 변한 '인경'과 같이 자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모음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모음에서 일어난 예가 훨씬 많다. 고유어에서와 같이, 자주 '오'가 '우'로 변함을 볼 수 있다. '대수', '대총'은 각각 '大事', '大總'에서 변한 말이다. 이들의 옛 발음은 '대스', '대총'이었다. 고려 시대에 '胡椒(호초)'란 이름으로 들어온 향신료는 오늘날 '후추'가 되었다. '웅치(雍齒)'가 '웅추'로 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토(動土)'가 '동티'로 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볼 문제로 남겨 둔다.

매우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예들이 더러 있다. '西洋鐵'과 '石硫黃(磺)'이 '생철'과 '성냥'으로 변한 것이다. 일부 논자(최남선<조선 상식 문답>, 1946)는 '의몽'과 '시늉'이 각각 '陰凶(음흉)'과 '形容(형용)'의 변화형이라고 했는데, 이에도 귀를 기울일 면이 있음을 느낀다.

## 5. 중국어 차용어

우리 국어는 중국어와 잇닿아 있어서 아득한 옛날부터 깊은 접촉을 가

져 왔다. 우리 국어 쪽에서 보면 주로 문물(文物)의 전래와 함께 그 이름도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온 중국식 발음은 우리 나라 학자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옛 학자들의 지적을 토대로 해서 필자도 이들 차용어에 대해서 논한 일이 있지만(〈국어 어휘사 연구〉, 1991, 참고) 더 넓고 깊은 연구를 통하여 완전한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근래에 간행된 사전들을 보아도 편찬자가 이런 차용어들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많다. 가령 '투서'를 보면 '套署, 套書'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본래 이 한자들로 된 말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중국어 '圖書'(발음 투슈)의 차용으로 '套署'나 '套書'는 이 말이 '투서'로 변한 뒤에 이 발음에 맞는 글자를 골라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취음자'라고 분명히 적어야 할 곳에 그것이 빠진 셈이다.

'탕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宕巾'이 제시되어 있어, 편찬자들은 예사 한자어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말은 근세중국어의 '唐巾'(발음 탕건)이 들어온 뒤에 '탕'을 나타내는 '宕'을 택하여 표기한 것이다.

〈1957〉을 비롯한 사전들에 표제어로서 '변씨만두'(卞氏饅頭)가 있으며 그 뜻은 '편수'와 같다고 하였다. 개성 지방에서 많이 빚어 먹는다는 '변씨만두'에 대해서는 〈東國歲時記〉에 변씨 집안에서 시작되어 이 이름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중세국어와 근대 국어에 중국어의 '匾食, 扁食'의 차용인 '편시'가 있었는데, '변씨'는 이의와 전임에 틀림없이 보인다. '편수'는 더욱 해괴하다. 이것은 필시 '匾'자의 우리 발음이 도입된 '편시'가 다시 변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더 상고할 필요를 느



킨다.

여기서, ‘套罽, 套書’, ‘宥巾’은 말할 것도 없고 ‘卞氏’까지도 사전에 실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들 써 왔으니 이들도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예사 한자어와는 다른 차용어임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짐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본래는 몽고의 차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따로 하려고 했으나 이미 약속한 원고 분량이 넘쳐서 여기에 덧붙이기로 한다. 현대어에도 남아 있는 ‘수라’, ‘철릭’, ‘절따(말)’, ‘송골(매)’, ‘사둔’ 등이 몽고어 차용어임을 필자가 논한 일이 있으므로(〈국어 어휘사 연구〉, 1991, 참고) 긴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만 이들이 ‘水刺’, ‘天翼, 綴翼’, ‘赤多’, ‘松鶻’, ‘查頓’ 등으로 표기되어 온 사실에 다시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원 사전이 아닌 현대어 사전에서 이들이 몽고어 차용어임을 밝힐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지만, 적어도 위의 한자 표기들이 취음자로서, 한자들의 본래의 뜻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天翼’이나 ‘查頓’과 같은 한자 표기에서 파생된 그럴듯한 설화까지 있으나, 이들이 아무 근거도 없음을 밝히는 것이 독자들에게 유의할 것으로 믿는다.

## 6. 끝말

원고 분량의 제약으로 하고 싶은 말의 반의 반도 못하고 말았다. 짧은 논술이기는 하지만, 국어 사전에 제시된 한자 표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으로 믿는다. 한마디로 한자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오랫동안 한자로 표기되어 온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근래의 사전들이 취음자라고 한 것 속에도 여러 부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어학의 여러 분야가 아직 미개척인 채 남아 있지만, 필자는 한자어 연구가 가장 뒤진 분야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해본을 위주로, 그 중에서도 한글로 표기된 부분만을 눈여겨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형편에서 한자어 투성이인 국어 사전을 편찬해 보아야 그것이 믿음직한 것이 되리라고는 도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자로 기록된 자료들에 눈을 돌리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인용 사전들〉

- 〈1880〉: 한불증언.
- 〈1920〉: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 〈1930〉: J.S.Gale, 한영대사전.
- 〈1938〉: 문세영, 조선어사전.
- 〈1957〉: 한글학회, 큰사전.
- 〈1961〉: 이희승, 국어대사전.
- 〈1990〉: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1991〉: 국어대사전, 금성사.
- 〈199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